



사순 제4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주님, 저도 보게 해주소서!

오늘 복음은 비신앙인이었던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생소경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분’으로, 바리사이파들에게는 “예언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과 죄인에 관한 논쟁 중에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회당 밖으로 내쫓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신앙은 완전해집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생 소경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치유하신 분을 단죄하려는 무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갖 모략과 비난을 넘어서서 치유된 자신과 가족마저 오해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 믿습시다.”라고 그를 치유해 주신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삶과 신앙에서 힘든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이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사람에게 대한 실망들로 인해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버리거나 다른 공동체로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부족한 신앙에서 유래합니다. 사람(성직자, 수도자, 봉사자, 동료)에 대한 실망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어 온 것이 하느님이 아닌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내 생각이나 방법만을 고집해 온 것은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실망은 하느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응시할 때 말입니다.



김화석 도미니코 신부 | 석전동 본당 주임



제 1 독 서
화 답 송
제 2 독 서
복 음

1사무 16,17-20,6-7,10-13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에페 5,8-14
요한 9,1-41

주일 진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이청준의 단편 「벌레 이야기」는 영화 「밀양」의 원작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다. 하지만 원작은 사건이 중심이 된 영화 「밀양」보다 좀 더 인물의 내면 갈등에 초점이 가 있고, 그 갈등의 중심이 바로 ‘용서’와 구원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생각보다 꽤 어려운 작품이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알암’은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로 별다른 취미생활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에 학원까지 다닐 정도로 주산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알암은 유괴를 당한다. 알암의 엄마는 이웃인 김 집사의 권유로 기독교 신자가 되어 하느님이 자식을 무사히 되돌려주기를 기원하지만, 유괴 80여 일 만에 알암은 결국 변사체로 발견된다. 범인은 다름 아닌 주산학원의 원장이었고, 그는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다.

아들이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깊은 슬픔에 잠긴 엄마는 신앙을 버리고 범인에 대한 원한과 저주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김 집사의 설득에 다시 하느님을 믿고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기에 이른다. 그녀는 심사숙고 끝에 자식의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로 면회를 간다. 그러나 그녀의 어려운 결심과는 판이하게 유괴 살해범인 주산학원 원장은 수감 생활 중에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으며 평온한 자세로 그녀를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모습에 그녀는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했단 말인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중, 살해범이 사형집행을 앞두고 남긴 유언, 즉 자신은 너무도 평온하며, 다만 유족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는 말을 라디오를 통해 들은 후 그녀는 약을 먹고 자살하고 만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선 내게서 그걸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이 작품의 요점은 바로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먼저 용서할 수 있으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 「벌레 이야기」의 ‘벌레’는 유괴 살인범인 주산학원 원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의 권리까지 없는 하찮은 미물이라고 여기게 된 주인공인 알암 엄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줄거리로만 볼 때 「벌레 이야기」는 종교적 내용이지만, 대개의 문학이 비유적이듯이 이 작품도 광주 사태의 주범인 전두환을 모티프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소설은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죄의 마음이 없다면 참다운 용서도 있을 수 없다는 보편적인 주제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고백’이 스스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반성의 행위까지 하느님이 대신 해 주시지는 않는다. 단순히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다른 이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은 용서하신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일론 신자’라고요?

유희선 가타리나 시인/가톨릭 문인회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나일론 신자’라고 얼버무리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 말이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수없이 뱉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일론(나이론)이란 말을 붙여서 쓰게 되었을지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짐작은 가지만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역시 면이나 실크와 같은 천연섬유와는 대비되는 인공적인 합성섬유라는 점에 차이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섬유는 진짜이고, 나일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나간 한 시대의 구교 집안과 일반 신자 집단의 미묘한 차이처럼 고루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처럼 간주됩니다. 물론 현재는 신자로서 열심히, 열심히 아니었는가? 라는 성급한 판단으로서 구분될 때가 많습니다. 식사 전에 성호를 긋는 것 하나를 예를 들어 보아도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나일론 신자라며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나일론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나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핑계 같지만,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누구나 실크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없으며, 실용적인 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일론이라는 소재가 개발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과연 나일론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실크와 같은 광택을 가지면서도 질긴 특성은 섬유의 혁명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개발을 거듭하면서 우리 삶 전역에 퍼져있기도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에 따라 어떤 물품들이 발명되듯이 어쩌면 우리 또한 ‘필요’에 의해 종교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칭 나일론 신자라는 고백은 무신론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한 역할의 무한한 잠재력이며 가능성일 것입니다. ‘꼴찌에게 갈채를’이라는 문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를 강박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공동체의 이해와 포용이 있다면 우리는 끝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래 진짜와 가짜라는 존재의 구분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약동하는 삶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삶과 죽음의 맞물림

베라크루스 지방의 엘 타히 유적 구기장의 돌을새김에 두 사람의 선수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부조는 죽음과, 머리를 자르는 의식과 공놀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다른 그림에는 복잡한 머리 장식을 한 두 사람이 가운데를 향하여 마주보고 있다. 두 사람의 앞에 있는 것은 두 마리 뱀의 머리인데, 각각 뱀의 입으로부터 길게 나온 혀가 끝부분에서 서로 얹혀 '올린(움직임)'이라는 글자를 이룬다. 둘의 마주섬은 움직임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뱀은 생명을 상징한다. 즉, 공놀이의 마주치는 힘이 움직임을 만들고, 그것은 생명이 나타나고 시간이 흐르는 데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치되는 두 힘의 조화, 인간이 찾는 균형은 그 내부에 있는 인간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이 이중성이 균형을 이루며 맞물려 갈 때 물리적으로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천체의 움직임도 빛과 어둠, 밤과 낮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 정혜주, 『멕시코시티_아스테카 문명을 찾아서』, 64-65쪽

멕시코 아스테카 문명 설화에 의하면, 어둠이 지배하던 때에 두 신들의 영웅적인 죽음으로 태양과 달이 태어났지만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들의 심장을 태양신에게 바쳤더니 드디어 우주의 질서가 생기고 '움직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아스테카 문명은 이런 설화를 토대로, 태양의 지속적 움직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신공양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공놀이는 희생될 사람을 결정하는 의식입니다. 어차피 승리자와 포로의 싸움이며 이미 누가 죽어야 할지는 정해져 있지만, 이 희생이 신들을 따르는 숭고한 것이고, 또한 별들과 우주의 운행을 위한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장엄한 의식으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주적 움직임과 생명의 약동은, 그 반대의 극점에 있는 죽음과의 대치, 죽음과의 균형을 이루는 이중성에서 온다는 이해를 보게 됩니다.

답답한 현실을 뒤흔드는 희망 <비우니 채워지더라>

오늘은 갈치, 내일은 고등어. 설날 남긴 냉동실 나물 녹여 비빔밥 해 먹고... 냉동실 발가벗고 나니 은행 갈 일 별로 없고 한 달 생활비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부자 된 기분이다.

...코로나만 아니면 좀 답답해서 그렇지 비우고 나니 얻는 것도 많음을 깨달았다. 혼자 즐기는 법도 배우고 각자 위생을 챙기면서 희망을 가지면 그 또한 지나갈 것이다.

...보리 한 되 사 와서 모아둔 플라스틱 통에 보리싹을 키우니 먹기도 하고 집안이 푸른 잔디밭이 되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는 현명한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하자.

대구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는 박영자 할머니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글이 기사(뉴스1, 3월8일)로도 소개되며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희망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써, 역경이 있기에 그것을 이겨내고, 절망이 있기에 그것을 극복하며, 약점이 있기에 그것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덕입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용기를 내듯, 우리 삶의 좋은 것은 그 반대점과의 마주침으로 얻어집니다.

극과 극이 만드는,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리듬



아델리 펭귄은 한 달 정도 알을 품으면 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남극이 가장 따뜻할 때입니다. 아버지는 뱃속에 저장한 크랄을 토해내며 새끼들을 키웁니다. 어미가 돌아오려면 며칠 걸리니 조금씩 토해내며 버텨야 합니다. 이 시기, 부모의 체중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적도, 열대의 바다, 이곳에 낯선 생명체가 보입니다. 북극에 사는 흑등고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도에 나타난 이유는 출산과 육아 때 문입니다. 북극의 차가운 겨울바다는 지방층이 얇은 새끼에겐 가혹한 환경입니다. 일 년 내내 따뜻한 적도의 바다는 피부가 여린 새끼를 키우는 데 최적의 공간이죠. 하지만, 어미젖을 먹는 새끼와 달리 이곳엔 어미의 먹이가 없습니다. 굶는 수밖에요. 수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모유로 새끼를 키우는 어미는 체력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 20.03.03. KBS 대기획 "23.5" 1부 봄날의 전투_극과 극

아델리 펭귄 부모가 자신들의 몸을 축내면서, 그리고 흑등고래 어미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의 밀알은 또 다른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러나 그 밀알 또한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확장과 성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끼가 태어나고 자라듯, 어미 또한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해갑니다.

아직 새끼들은 바람에 취약합니다. 솜털만으로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이 경사면에 쌓인 얼음 알갱이들을 싣고 날아옵니다. 얼음 알갱이가 콜론 위를 뒤덮지만 바람을 등진 채 묻혀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모든 걸 쓸어낼 기세로 강하게 몰아칩니다. 이곳은,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낸 새끼들은 한층 성숙해졌고 바다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알을 깨고 나온 지 두 달, 새끼는 날마다 빛깔을 달리하며 자라납니다.

혹독한 시련의 바람, 생명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약한 생명을 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것은 그런 혹독한 시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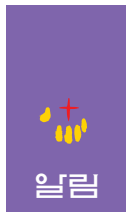
45억 년 전, 태양 주위를 돌던 지구가 작은 행성과 충돌해 만들어진 기울기 23.5도, 절묘하게 기울어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울기, 23.5도, 그것은 기적 같은 생명의 리듬이었습니다.

기울기의 극적인 지배를 받는 곳. 남극과 북극은 번갈아가며 얼고 녹기를 반복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 생명들의 삶은 이어집니다.

23.5(바로 그 기울기), 지구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숫자입니다.

우리 삶은 절대 평평하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기울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생기는 삶의 굴곡들, 그러나 그 기울어짐에는 절묘함이 있습니다. 삶의 기울기가 만들어내는 그 굴곡들은 결코 삶의 나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약동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교구장 동정

성지여고 학생 식당 축복식

일시: 3월 25일(수) 11:00

장소: 성지여고 학생 식당

교구/본당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매주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수도회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자격: 만 50세 미만 남·여신자

시기: 5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문의: 회장 010·8525·1150

기 타

함안 안나의 집 입소 안내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시설 등급자

주소: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응모자격: 등단하지 않은 마산교구 천주교 신자
- 응모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응모마감: 2020년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원 (소설 70만원)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
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주님! 김차규 필립보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교구 원로사목자 김차규(필립보) 신부가 3월 19일(목)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3월 20일(금) 10시 교구청에서 배기현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고인은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에 묻혔다.

약 력

1940. 4. 3.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13-4번지 출생
 1959. 2. 서울 성신고등학교 졸업
 1966. 12. 서울 가톨릭대학교 졸업
 1965. 12. 부제 수품
 1966. 12. 16. 사제 수품(남성동성당/김수환 주교 집전)
 1967. 1. 12~1970. 8. 20 산청본당 주임신부
 1970. 8. 21~1977. 12. 27 독일 유학
 1977. 12. 28~1981. 1. 26 중앙동본당 주임신부
 1981. 1. 27~1982. 2. 1 휴 양
 1982. 2. 1~1988. 6. 27 미국 교포사목(덴버본당)

1988. 9. 27~1993. 8. 16
 1993. 8. 17~1994. 8. 16
 1994. 8. 17~1995. 4. 17
 1995. 4. 18~1997. 8. 19
 1997. 8. 20~2001. 1. 30
 2001. 1. 31~2002. 1. 31
 2002. 2. 1~2002. 8. 9
 2002. 8. 10~2003. 1. 13
 2003. 1. 14 ~2006. 1. 4
 2011. 1. 7

옥봉동본당 주임신부
 안식년
 교포사목(미국 아리조나본당)
 교포사목(베를린 한인본당)
 회원동본당 주임신부
 휴 양
 반송본당 주임신부
 휴 양
 월남동본당 주임신부
 은퇴(원로사목자)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탈출 15,1)

김유태 비오 신부

언젠가 전례 음악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접한 내용 중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에 남은 바는 다 음과 같다. 소리로 표현되는 말에는 세기나 높낮이, 빠르기 등의 음악적 요소가 녹아있는데, 이 특성을 살려 전례문이나 기도문 등을 더욱 아름답고 정성스레 표현해내려는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가라고 부르는 것이 태동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단 성가만 그러할까.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장르의 노래는 말의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는 가운데에서 생겨났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의 신비로움이 새삼 느껴진다. 음악적 요소를 표현하고 들을 줄 알기에 단순한 표현보다 노래로 더욱 깊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한편 노래를 넘어 기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무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신비를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대니얼 J. 레비틴의 『호모 무지쿠스』라는 책도 있다고 하니 여유가 생긴다면 읽어보고 싶어진다.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심금을 울리는 음악의 매력을 느껴보았을 것인데, 나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신학교 시절, 한창 학기말 시험을 준비할 때이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거기다 각 과목마다 방대한 분량을 볼라 치면 낮을 놓기 일쑤였다. 이때 위안이 되었던 노래는 그 당시 유행했던 IU(아이유)의 ‘너랑 나였다. 시계를 더 보쳐서라도 만나고픈 미래가 있다는 가사 내용과 그 기대를 발랄한 느낌으로 드러내는 멜로디가 방학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어루만졌기 때문이었을까. 손가락으로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안무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또 하나는 가사가 없는 피아노 연주곡인데, Ludovico Einaudi(루도비코 에이나우디)라는 음악가의 ‘Nuvole Bianche(흰 구름)’라는 곡이다. 처음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의 배경음으로 접했는데, 그 곡이 궁금하여 애타게 찾아 알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네 개의 화음을 기본으로 잔잔함에서 점차 걱정적 멜로디로, 이내 소강되는 흐름과 변화를 주는 형식이다. 원작자의 의도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안 이후론 구름처럼 흘러가는 일상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힘든 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다독여주는 느낌 때문인지 종종 들곤 했다.

요새는 가톨릭성가들을 자주 흥얼거린다. 성경 구절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표현하는 내용들의 심오함과 이를 표현하는 산율의 맛을 깊이 느껴가기 때문일까, 아니면 쉬이 흥얼거릴 수라도 있기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할지 모를 마음을 대변해줘서일까. 해서 최근엔 예비자교리의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는 기억나는 성가를 부르는 것도 좋으리라 설명한 적도 있다.

여하튼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느님 백성이라면 음악과 떨어져 살 순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노래를 했다고 표현된 장면(탈출 15,1-19)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 곧 하느님의 강한 손을 체험한 이후이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손북을 들고 노래를 매겼던 미르얌(탈출 15,20-21)이 죽으니(민수 20,1) 곧바로 공동체에 마실 물이 없어졌다는 상황(민수 20,2)은 우연의 일치일까. 하느님을 노래로써 찬미하는 일은 성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자 하느님 백성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처럼 보인다. 해서 나는 음 이탈(소위 뽕사리)이 자주 나는 편임에도, 언제부턴 미사 때 부르는 성가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려 노력한다.